

고정일 동서문화사 대표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돼” 출판과 인쇄는 문화운동의 중심지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1년이 되는 날이다. 6.25를 겪은 세대이자 ‘불과 얼음’이라는 6.25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발표한 고산 고정일 동서문화사 대표를 만났다. 고정일 대표는 나이 16세에 출판사를 창업하여 55년을 한결같이 책만들기에만 힘써왔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의 소설과 동화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장님께서 발간하신 '불과 얼음'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오는데요. '불과 얼음(장진호 혹은 17일)'에 대해 소개해주시시오.

'불과 얼음'은 폭풍설이 몰아치는 영하 40도의 개마고원 갈바람 속에서 벌어진 17일간의 장진호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 미 해병 2만이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중공군 15만 병사에 포위되면서 벌인 전투로, 극한 추위와 협준한 지형 속에 6500명 넘는 미군 사상자를 낸 격전이었습니니다. 이 책은 제 경험담이 아니라 통역장교로 활동했던 이범신 씨의 참전기입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의 이 씨는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를 나와 미국 국무부 관료를 지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받은 이 씨의 한국전쟁 경험담을 '불과 얼음'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6·25를 겪으며 1·4후퇴 때 어머니와 동생들을 한꺼번에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깐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진호 전투에 대해 알려주시시오.

'불과 얼음'의 배경은 일본인들이 만든 개마고원의 인공호수인 장진호입니다. 일제는 만주 침략의 전초기지로 함경도 산골에 장진호를 만들었습니다. 파죽지세로 함경도까지 올라간 2만 명의 미 해병은 장진호에서 15만 중공군에 포위되고 맙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지요. 실제로 중국에는 '몽골인의 땅에서 겨울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전투보다 추위가 더 매서웠고 병사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부상병들은 모르핀이 얼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얼어붙은 다리는 톱으로 잘라냈으며 방아쇠에 들러붙은 손가락이 찢어지기도 하는 등 전쟁터는 아비규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소설로 옮기며 저는 세계전쟁사에 이름난 겨울전쟁으로 장진호전투가 떠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전투나 히틀러의 스탈린 그라드 전투도 추위로 인해 좌절됐습니다. 그런 전쟁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반공을 강조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과 전쟁을 양쪽 모두 정직하게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6·25를 겪으신 세대로서 직접 겪으신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게임인지 영화

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을 직접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와 여자, 어린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옆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폭탄에 기둥이 쓰러지는 바람에 어머니를 덮쳐 가슴이 피범벅이 된 어머니가 있었고, 옆에 있던 동생은 폭격파편이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리가 떨어져 나간 채 죽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치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난 기간에 여러 날을 굶었기도 했는데, 미군 부대 주위에서는 미군이 먹고 남긴 음식물인 꿀꿀이죽을 구걸해 연명했습니다. 미군이 전투하다 떠난 참호를 뒤져 얼어버린 빵조각 비스킷이나 햄 같은 것을 파먹었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희생당한 이야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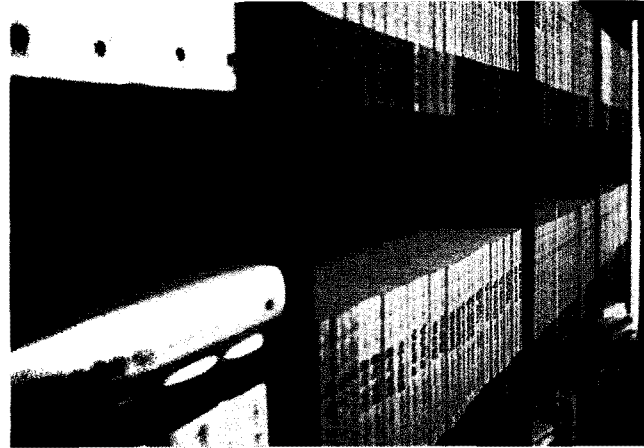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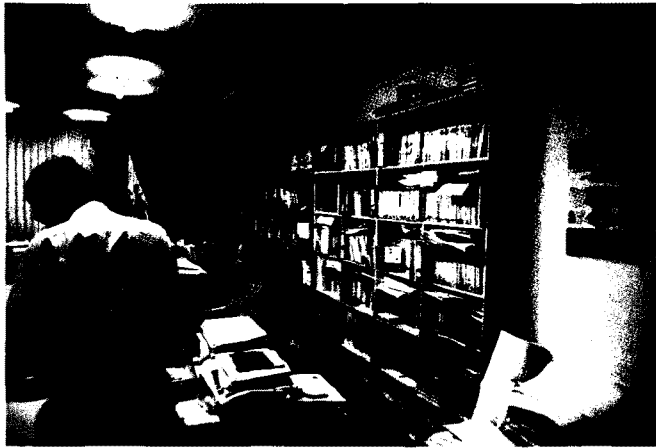
솔직히 말해서 6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날의 핏빛 영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죄진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죄스럽습니다. 아직도 왜 나만 죽지 않고 혼자 살아나왔을까 하는 자책감과 고뇌에 시달리곤 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해 출판업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년시절 신문배달을 하면서도 책읽기를 좋아하여 종로에 있는 영창서관에 자주 들렀습니다. 서점과 출판업을 겸하고 있었던 영창서관 주인인 장복한 옹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어린 저를 기특하게 여기고 서점에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출판부서에서 책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눈에 익혔습니다. 이렇게 3년을 일한 후 영창서관 주인인 장복한 옹의 권유로 서점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헌책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 청계천 다리는 헌책 노점상들로 즐비했는데, 저 역시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당시 유명했던 아리랑의 과월호와 함께 반풍된 소설책, 시집 등 헌책 새책을 가리지 않고 손에 들어오는 대로 모두 노점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 2년 뒤 종로 6가에 정일출판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출판인으로 당당히 입문한 것입니다.

1968년 출판사 이름을 '정일'에서 '동서문화사'로 개명하고, 사무실도 을지로로 옮겼다가 1990년 강남의 신사동으로 옮겨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의 손에서 기획되고 출판된 책은 인문, 사회과학, 아동도서 등 문화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 3000여종을 웃돕니다.



1-3. 동서문화사 전경 4.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출판한 명심보감등

주요 출판으로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세계사상전집, 한국세계대백과사전,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고산 국어대사전, 동서문고, 한국명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소설 '대망'은 전 35권이 1969년에 출간되었는데 당시 출판계를 제압할 만큼 히트를 기록했고, 그 바람에 출판사가 일거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출판인이면서도 다양한 소설을 집필하시는 등 아직도 현업 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설을 한편 써봐야지 하는 생각은 많았습니다. 김동리, 황순원 선생의 소설을 읽다보면 그 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자유문학에 단편 '청계천'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소설들을 썼고, 최근에도 '불과 얼음' 외에도 '최승희'에 대한 소설을 발표하는 등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에도 관심이 많아 동화를 종종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꿈이 있으면 괜찮아'를, 2011년 3월에는 '차돌맹이의 꿈'

이라는 동화를 발표했습니다. '차돌맹이의 꿈'은 레일의 침묵 사이에서 빼곡히 머리를 맞대고 철로를 받쳐주는 일을 하던 차돌맹이가 원치 않게 철로 밖으로 튕겨나갔다가 되돌아오기까지 겪은 일을 통해 한층 성숙해 가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환갑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벌을 위해 대학원을 간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모두 야간학교들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일반대학원생들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졸업 논문인 '신문판 최남선, 고단샤 노마 세이지의 애국작법'입니다. 개화의 물결 속에서 출판은 국권과 민권수호를 위한 애국정신과 계몽운동 함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몽적인 출판문화운동으로 전 국민의 민족정신 양양에 힘쓴 대표적 출판인으로 한국의 최남선과 일본의 노마 세이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해 그들의 삶과 한국 일본의 근대문화로 나아가는 역동적 성과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출판과 인쇄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판과 인쇄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출판이 인쇄고 인쇄가 바로 출판이니깐요. 그런데 요즘 출판과 인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 중 독서량은 꼴지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책을 안 읽는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책만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책장사를 하고 있던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당 인쇄나 삼화당인쇄, 보진재처럼 오래된 인쇄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책을 만들고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운동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 전자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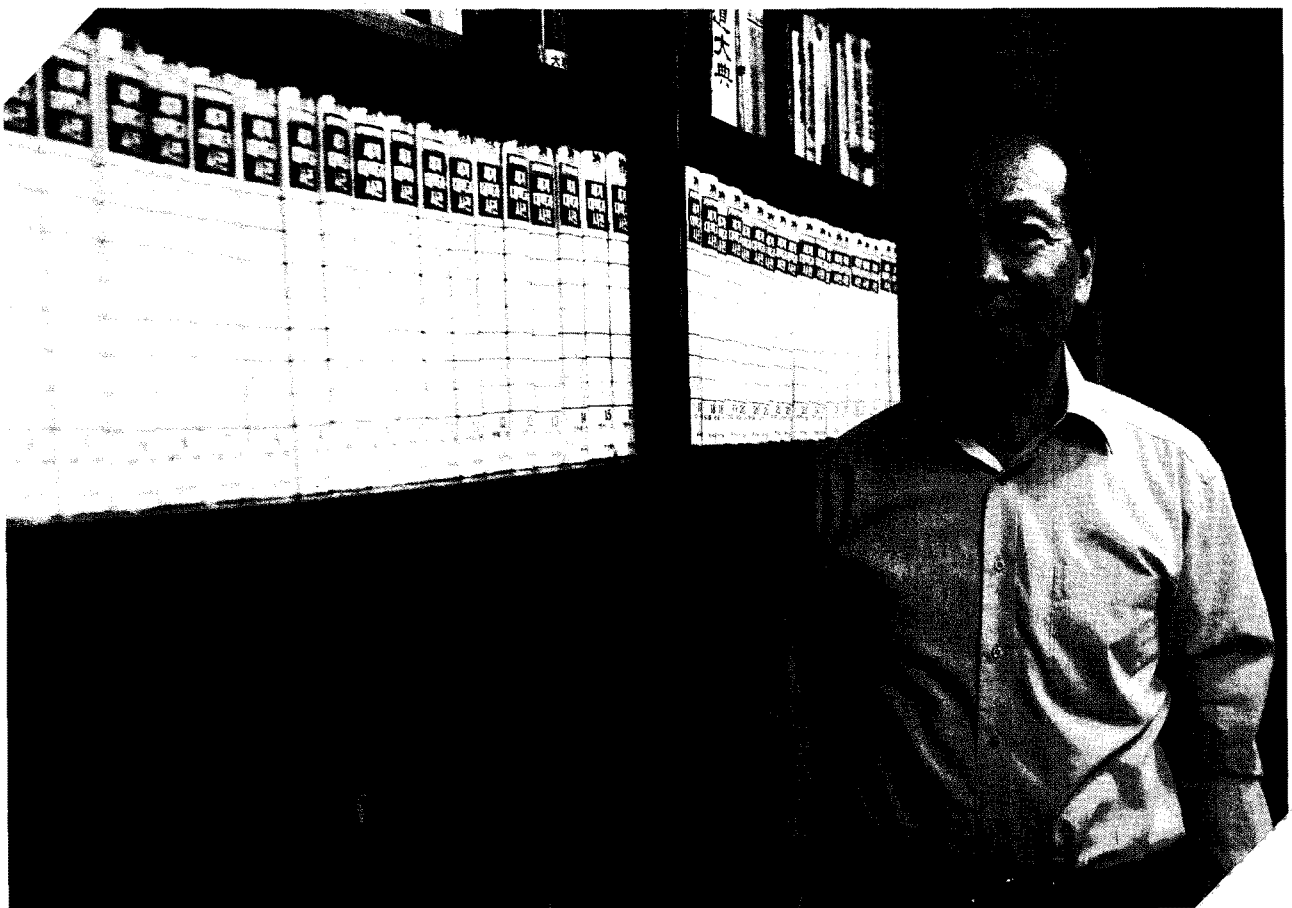
바야흐로 책은 기술적 혁신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시간이상

전자책을 보라고 하면 눈앞이 어른거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파가 어린이들에게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전자책을 어린이에게 보라고 주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글에서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책을 접하면서 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책은 우선 그 점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분명 어떤 책의 표지를 만진다. 책을 열어서 종이와 잉크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페이지를 넘긴다. 종이장 스키는 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책은 다시 책장으로 돌아간다. 또는 다른 사람 손에 건네진다. 때로는 불에 타서 재가 된다. 또 때로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점점 삭아간다. 그래도 책의 영혼, 즉 이야기는 우리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책만큼 더 좋은 단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책에는 전자책이 줄 수 있는 감촉과 향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사진. 안세민기자 heroic127@print.or.kr



고정일 대표가 출판한 백과사전